



김상래(삼육대)

1. 서론

구약¹⁾에는 ‘하늘 성전’이나 ‘하늘 성소’²⁾란 문자적 표현이 없다. 즉, 전치사 מִן (미/-부터)나 בְּ (브/-안에)와 연결시킨 $\text{מִיְקְדָשׁ בְּשָׂמַיִם}$ (미크다쉬 브샤마임/하늘에 있는 성소)이나 $\text{מִיְקְדָשׁ בְּשָׁמַיִם}$ (헤이칼 브샤마임/하늘에 있는 성전)이란 표현도 없고, $\text{מִיְקְדָשׁ בְּשָׂמַיִם}$ (미크다쉬 미샤마임/하늘에 있는 성소)이나

* 이 논문은 2018년도 삼육대학교 교내 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1)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한 기독교적 표현이다. 유대교의 경전인 타나크(Tanakh)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표현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용어를 혼용하여 일반적인 표현일 때에는 ‘구약’으로, 유대 문헌들과의 관계에서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표현한다.
- 2) 하늘 성소/성전이라는 표현이 ‘성소로서의 하늘’(heaven as temple)과 ‘하늘같은 지상 성소’(heaven-like earthly temple)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temple in heaven)의 의미로만 제한하여 사용한다.

הַיְכָל הַשָּׁמַיִם (헤이칼 미사마임/하늘에 있는 성전)이란 표현도 없으며, 하늘을 형용사로 나타낸 구성형의 הַשָּׁמַיִם הַקְּדוֹשִׁים (미크다쉬 하사마임/하늘의 성소)이나 הַיְכָל הַשָּׁמַיִם (헤이칼 하사마임/하늘의 성전)이란 표현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³⁾ 그런데 구약 정경 이외의 유대 문헌에는 ‘하늘 성소’가 구체적이고도 명료한 문자적 표현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경 에녹 1서와 쿰란 제4 동굴에서 발견된 안식일찬송시(4QShabbatShirot)이다. 전자는 에녹의 하늘 성소 여행을 생생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후자는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천사들의 봉사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또 유대 랍비 문헌들은 구약의 여러 구절들 주석에서 하늘 성소 개념을 도출한다.⁴⁾ 유대 문헌들이 어떤 신학적 주제를 전개할 때, 히브리 성경을 그 최종적인 권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구약에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되지도 않은 ‘하늘 성소’라는 주제가 성서 이외의 다양한 유대 문헌에 풍부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⁵⁾ 이 연구는 이런 흥미로운 현상을 탐색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유대 문헌에 나타난 하늘 성소 모티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미 시도되었다. 그런데 그 연구들은 대부분 하늘 성소 모티프의 ‘기원과 발전’에

3) 히브리어 הַקְּדוֹשִׁים(미크다쉬)나 הַיְכָל(코데쉬)는 영어로 sanctuary 국어로 ‘성소’로 번역되고, הַיְכָל(헤이칼)은 영어로 temple이나 palace 국어로 ‘성전’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성소’와 ‘성전’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4) 특별히, 타나크(Tanakh)에 대한 유대 랍비들의 주석인 미드라쉬(Midrash)에 그런 언급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미드라쉬 전편에 걸쳐 하늘 성전에 관한 언급들을 주제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늘 성전의 선재성, 하늘 성전의 위치, 하늘 성전의 목격자들, 하늘 성전의 건축자들, 지상 성전과 비교한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의 거주자들, 하늘 성전에 새겨진 것, 하늘 성전의 제사장 미가엘, 그리고 속죄의 공간으로서의 하늘 성전, 등등이다. Henrietta Szold, *The Legends of the Jews*, translated by Louis Ginzberg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47)의 인덱스를 참고하라. 하가다(Haggadah)에 나타난 하늘 성소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Victor Aptowitz, *The Celestial Temple As Viewed in the Aggadah*. adapted by Aryeh Rubinstein (Jerusalem: International Centre for University Teaching of Jewish Civilization, 1931). 이 책의 저자에 의해 수집된 랍비 문헌에서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직접 인용된 히브리 성경의 본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창 28:17-19, 출 15:17; 25:8, 왕상 8:13; 22:19, 왕하 19:23, 시 11:4, 겔 1:10, 단 7:9, 사 6:1-6; 37:24, 렬 17:12, 하박국 2:20.

5) 이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나는 2016년 7월 6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SBL International Meeting of Apocrypha & Pseudepigrapha Section에서 “The Heavenly Temple/Sanctuary Idea in Extra-canonical Jewish Literature: Which Passages Are Quoted from the Hebrew Bible and for What?”을 발표한 바 있다.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예를 들어, 한 세기 전인 1908년에 하늘 성소에 대해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를 시도한 뷰캐닌(Gray, G. Buchanan)은 자신의 연구를 “우리는 하늘 성소에 대한 개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이 개념의 역사는 어떠한지…물어야만 한다”⁶⁾는 말로 시작하였다. 1970년 해머톤-켈리(Hamerton-Kelly)는 성소 개념이 유대 묵시문학의 기원이 되었고, 묵시문학을 통해 하늘 성소 사상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논증하였다.⁷⁾ 1987년 맥니콜(A. J. McNicol)은 ‘하늘 성소’를 모델로 삼아 유대 묵시문학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⁸⁾ 같은 해에 힘멜파브(Martha Himmelfarb)는 유대 묵시문학에 나타난 ‘묵시적 승천과 하늘 성소’의 신학적 함의를 추적하였다.⁹⁾ 1990년 마가렛 바커(Margaret Barker)는 성소의 상징적 의미를 추적한데 이어,¹⁰⁾ 1998년에 묵시문학에 나타난 대제사장직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하늘 성소 개념을 분석하였다.¹¹⁾ 이런 연구들은 대개 하늘 성소라는 개념을 다양한 역사적-사상적 배경에서 분석한 것들이다. 그리고 하늘 성소 개념의 기원이나 발전을 추적한 연구들은 대개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역사적 정황을 강조한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하늘 성소 교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¹²⁾고도 하고, 이미 있던 신학적 관심이 그 때에 “증가했다”¹³⁾고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하늘 성전이란 주

-
- 6) Gray, G. Buchanan, “The Heavenly Temple and The Heavenly Altar”, *The Expositor*, 7th series, volume 5 (1908), 385-402, 530-546 (386).
 - 7) R. G. Hamerton-Kelly, “The Temple and the Origins of Jewish Apocalyptic”, *Vetus Testamentum* 20 (1970), 1-15.
 - 8) Allan James McNicol, “The Heavenly Sanctuary in Judaism: A Model for Tracing the Origin of an Apocalyp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3/2 (1987), 66-94 (69).
 - 9) Martha Himmelfarb, “Apocalyptic Ascent and Heavenly Templ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tudy Papers* 26 (1987), 210-217.
 - 10) Margaret Barker, *The Gate of Heaven: The History and Symbolism of the Temple of Jerusalem* (London: SPCK, 1990).
 - 11) Margaret Barker, “Beyond the Veil of the Temple: The High Priestly Origins of the Apocalypse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998) 51/1, 1-21.
 - 12) Robert G. Zimmer, “The Temple of God”,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8 (1975), 41-46 (43).
 - 13) Himmelfarb, *윗글*, 211.

제는 “솔로몬 성전의 파괴라는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¹⁴⁾고 하였다. 이런 판단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¹⁵⁾ 법제가 사라진 현실에서 새로운 신학적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이 파괴된 지상 성전의 ‘원형’이나 ‘대체’로서 하늘 성전이었을 것이다.

이런 선행 연구들은 하늘 성소 모티프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학문적 기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관심은 하늘 성소 모티프의 역사적 기원이나 발전이 아닌 다른 차원에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히브리 성경에 의지하여 신학적 사상을 전개하는 유대 문헌들이 히브리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지도 않은 ‘하늘 성소’라는 주제를 전개하면서 도대체 그 성경의 어떤 구절을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였는지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늘 성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경 외 유대 문헌의 히브리 성경에 대한 문학적 의존성의 여부와 정도, 그리고 그 방식을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이런 시도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유대 문헌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문헌들은 그 기원과 성격에 있어서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록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역본의 판들도 다양하다. 문학적 성격도 묵시문학, 지혜문학, 예언문학, 찬양문학, 성서주해, 공동체 규약 등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첫째는 히브리 성경 이외의 유대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되 위경과 쿰란 문헌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미쉬나(Mishnah)나 미드라쉬(Midrash) 등의 랍비 문헌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늘

14) Oswald Loretz, ‘Gottes Thron in Tempel und Himmel nach Psalm 11: Von der altorientalischen zur biblischen Tempeltheologie’, *UH* (1995), 245-70 (266).

15) 배정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논증한다. 배정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개운동의 모델 연구”, 『구약논단』 65 (2017), 112-138.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강승일,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기록한 공간”, 『구약논단』 15 (2009), 126-143.

성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¹⁶⁾ 신약 성경의 편집이 완성되기¹⁷⁾ 이전의 유대 문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이 문헌의 범주 내에서 분석 방식은 ‘공시적 접근법’(synchronic approach)만을 사용한다. 이 말은 ‘하늘 성소’라는 주제가 이들 문헌들의 기록이나 편집 시기와 관련되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헬라 사상이나 바벨론 사상의 영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통시적(diachronic) 접근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위경의 저자들과 쿰란 문헌을 남긴 공동체의 역사적 배경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출판된 문헌들의 ‘최종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문학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하늘 성소 모티프를 중심으로 정경 외 유대 문헌, 특별히 위경과 쿰란 문헌들의 히브리 성경에 대한 ‘문학적 의존성’을 ‘공시적-문학적 접근법’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좀 더 세밀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경 외 유대 문헌에 나타나는 하늘 성소 개념이 구약의 본문에 근거하여 제시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로 만일 구약을 하늘 성소 개념을 전개하는 권위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구약의 어느 본문을 의존하는지를 탐색한다. 셋째로 그 의존 방식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16) 신약에는 ‘하늘 성전’이 문자적으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대표적이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히 8:5),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히 9:23),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계 11:19), “하늘에 있는 성전”(계 14:17), “하늘에 증거 정막의 성전”(계 15:5).

17) 현재의 27권 신약성경의 편집은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인 AD 4세기경에 이루어졌다.

2. 위경¹⁸⁾에 나타난 하늘 성소

대개 구약의 유명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을 저자로 내세우고 있는 차명서(借名書)인 위경의 문헌들은 하늘 성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위경의 문학형태는 다양하지만 상당수는 분명한 묵시문학적이고 나머지 언약서나 지혜문학서들도 다분히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¹⁹⁾ 바로 이 “유대 문헌에서 하늘 성전에 관한 가장 초기의 명료한 언급들”²⁰⁾이 등장한다. 이제 이 언급들 속에서 히브리 성경에 대한 문학적 의존성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희년서(Book of Jubilee)²¹⁾

이 책에서 성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죄에 대한 책망 속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자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회막과 성전”(1:10)도 그들의 죄로 인해 원수의 손에 넘겨져 파괴될 것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며 회개할 것과 “그들 가운데 내가 나의 성전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참되고 의로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1:17)라는 종말론적 약속을 한다. 죄로 오염된 현재의 지상 성전(23:21)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새 성전이 약속된 것이다. 원수들의 손에 파괴될 성전은 사람이 세운 지상

18) 이 논문에서 위경이란 명칭은 프로테스탄트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가톨릭은 외경을 제2정경이라 하고, 위경을 외경이라고 부른다. 위경의 텍스트는 1913년 영국학자 R. H. Charles가 두 권으로 출판한 것과 1983년 J. H. Charlesworth가 후에 발견된 위경을 포함하여 두 권으로 새롭게 출판한 것이 있다. 전자가 R. H. Charles, *The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of the Old Testament* (Great Britain: Oxford University Press, 1976)이고, 후자가 James H. Charlesworth,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Apocalyptic Literature & Testaments* (NY: Doubleday, 1983)과 Volume 2 (1985)이다. 이 논문에서는 두 책에서 위경의 텍스트를 인용하였다.

19) D. S. 러셀, 「신구약중간시대」(*Between the Testaments*), 임태수 역 (서울: 콘콜디아사, 1997), 104 참조.

20) Gray, 윗글, 387. 강조 첨가.

21) Charlesworth, 윗글, 2:35-142.

성전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종말론적 성전은 어떤 것일까? “첫 창조부터 내가 나의 성전을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세울 때까지”라는 21절이 힌트를 준다. 여기서 ‘첫 창조’는 세초(Urzeit)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세울 때는 세말(Endzeit)이다. 다시 말해 이 성전은 새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친히 세워진다. 49장 18절에서 “주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49:18)라는 비슷한 표현이 그것을 확증한다. 이 성전은 “시온 산 위에”(49:29) 세워진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성전이 세워질 시온산은 에덴동산과 시내산과 함께 거룩히 구별된다(4:26). 이 셋은 새 창조에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다(8:26-27). 이 새 성전은 이 땅의 더러워진 성전을 대신할 것이다.

종말론적 새 성전의 약속은 레위에게 베푸는 이삭의 축복 속에 다시 언급된다. “여호와께서…현재의 천사들과 거룩한 이들이 그리하듯이 모든 육체 가운데서 너와 너의 씨를 그에게 가까이 이끄시어 그의 성전에서…그분을 섬기게하기를 원하노라(31:14). 하늘 성소의 현존과 관련하여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종말론적 성전은 마지막 날에 나타나기 전에 지금 천사들이 섬기면서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회년서는 이렇게 반복하여 종말론적 새 성전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 새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것이다.

2) 에스라4서(4th Book of Esdras)²²⁾

이 책은 하늘 성소에 대한 개념을 풍유적 방법으로 소개한다. 10장 46-55절에서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 상징적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하늘 예루살렘과 성소는 어머니로, 그리고 이것의 지상 대응물은 아들로 상징된다. 이 하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의 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종말에 ‘감추어진’ 도성이 이르러 올 때에(7:26), 이

22) 윗글, 1::517-560.

어머니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에 그녀는 충만히 임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상의 백성들은 하늘의 의식에 다가갈 것이다. 여기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동일한 것이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나타낸다.

3) 바룩 2서(Book of 2Baruch)²³⁾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셨다(4: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끝과…현 성소의 식양을 따라 만들어진 시온의 식양과…낙원의 영광과 마지막 시기와 심판의 날의 시작과…아직 오지 않은 세상”(59:4-10)을 보여주셨다. 이 본문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본 리스트 중에 '하늘 성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마가렛 바커는 여기에 하늘 성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놀랍다'고까지 하였다.²⁴⁾ 그러나 '시온'이 현재 성소의 식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진술은 그 시온이 '하늘 성소'임을 확증해 준다. 그리고 '시간의 끝, 낙원의 영광, 마지막 시기, 심판의 날' 등은 그 하늘 성소가 나타날 때가 종말의 때임을 밝혀준다. 이 본문의 후반부에 언급되는 검은 물과 맑은 물의 환상(53-69장)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하늘 성전의 이상적 기능을 나타낸다. 검은 물은 죄로 오염된 지상의 예루살렘을 나타낸다. 그러나 맑은 물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희망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검은 물로 대표되는 오염된 지상 성전이 맑은 물로 대표되는 하늘 성전으로 대체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본문은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의해 유지될 하늘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4:2-7).

4) 레위언약서(Testament of Levi)²⁵⁾

레위는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는다. 그는 차례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들어간다(2:5-9). 그리고 여호와와 사자로부터

23) 윌클, 1:615-652.

24) Barker, 윌클, 10.

25) Charlesworth, 윌클, 2:788-795. 레위언약서는 위경 12죽장들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

“너는 그의 제사장이 되리라”(10절)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 바로 거기에 “모든 거룩함보다 승한 지극히 거룩한 곳에 위대한 영광이 거하신다”(3:4). 그리고 천사장들이 “거기서 주께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5절). ‘위대한 영광’은 소위 메르카바(Merkabah, 병거) 본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별칭이다.²⁶⁾ 하나님이 거하는 ‘지극히 거룩한 곳’은 지상 성전에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응한다. 천사장은 대제사장에 일치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 이전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은 성전의 뜰과 첫째 칸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묘시는 모두 원형적인 하늘 성전의 구조와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5장 1절은 “바로 그 순간 그 천사가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었고, 나는 하늘 성소와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분을 보았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현존하는 ‘하늘 성소’를 선명하게 언급한다. 레위는 지금 하늘 성전의 지성소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늘 성전’에 관한 언급은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을 찬양하는 메시아적 노래(18:1-14)의 문단에서도 발견된다. 이 장은 구시대의 부패한 제사장을 대신하여 주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한다(2절). 그리고 그의 의롭고 영광스러운 봉사에 대해 설명한 다음, 6절은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성전으로부터 그에게 거룩케 함(sanctification)이 이르리라”고 노래한다. 여기 ‘영광의 성전’이란 곧 ‘하늘 성전’이다. 레위의 자전적 기록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이 문서는 성소봉사를 맡은 레위의 이름으로 지상 성소를 대체할 원형으로서의 하늘 성소와 새 제사장 봉사를 소개한다.

26) 예룩1서 14:19; 102:3.

5) 에녹1서(1 Enoch)

이 책은 위경에서 하늘 성전에 관해 가장 화려하고 방대하게 묘사한다.²⁷⁾ 그래서 에녹서는 “하늘 성전을 보여주는 가장 큰 그림”²⁸⁾으로 간주된다. 특별히, 파수꾼의 책(Book of Watchers)이라고 불리는 에녹1서 1-36장은 하늘 성소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제공한다. 창세기 5장 22-24절의 일반적(exoteric) 진술을 비의적(esoteric)으로 확대한 이 텍스트는 유대 묵시문학 중에서 가장 이른 하늘 성소 승천 모티프를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흔히 묵시문학 중에서 하늘 성소에 관한 모든 논의는 “파수꾼의 책(에녹 1서 1-36)으로 시작되어야 한다”²⁹⁾고 강조되기도 한다.

홍수 이전 세상에 증가되는 악을 묘사하는 6-11장에 이어, 12장부터 하늘로 들어간 에녹의 여행이 시작된다. 그러나 12-19장에 묘사된 에녹의 하늘 성전 여행은 6-11장이 묘사하는 홍수 이전의 악한 시대, 즉 그가 살았던 36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12장 1-2절은 창세기 5장 22-24절에서 가져온 용어들로 시작한다. 하늘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에녹의 하늘 성소 입성과 그의 우주여행을 묘사하는 14장 1절에서 19장 3절에 집중되어 있다. 에녹은 하나님의 보좌에 다가가기 위해 하늘 건물들을 통과한다. 그는 벽을 지나(14:9), 바깥채를 지나(14:10-14), 마침내 안채에 이른다(14:15-25). 이 안채에 그룹들에 웅위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14:18). 이런 배치도는 성전의 구조를 연상시킨다. 14장 9-14절의 묘사는 성소의 첫째 칸에 해당하고,³⁰⁾ 15절 이하의 묘사는 지성

27) Charlesworth, *윗글*, 1:5-90 (Ethiopic Apocalypse), 91-222 (Slavonic Apocalypse), 223-316 (Hebrew Apocalypse). 헬무트 코스터는 에녹1서가 “헬레니즘 시대의 이스라엘 문헌의 복잡 다양함을 소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하였다. 헬무트 코스터, 「신약성서배경연구: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History, Culture, and Religion of the Hellenistic Age*), 이역부역 (서울: 은성, 2003), 408. 약 3세기에 걸쳐 형성된 이 책은 이디오피아 역본만이 한 권의 책 안에 자료 대부분이 보존되어 있다.

28) Zimmer, *윗글*, 43.

29) Himmelfarb, *윗글*, 210.

30) 맥니콜은 이 본문에 나타난 대리석 벽에 관한 묘사는 욥기 38장 22절, 37장 9-10절, 그리고 지붕에 관한 묘사는 시편 17장 10-14절과 에스겔 10장 1-5절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McNicol, *윗글*, 90.

소에 해당된다. 에녹은 하늘 성전의 내부로 들어가 거기에서 충만한 영광을 본다. 승천 장면이 이어 17-19장은 그의 우주여행을 소개한다.

비록 앞의 장들이 현존하고 있는 하늘 성전에 대한 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성전이 마지막 때에 지상 성전을 대체할 것임은 분명하다. 24장 1절부터 25장 6절에 나오는 성전은 새로운 시대에 이 땅에 임할 종말론적 성전으로 묘사된다. 이 성전은 회복된 낙원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특별하고 거룩한 산 위에 임할 것이다.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산 주위에서 발생할 것이다. 37장부터 71장에서는 하늘들의 하늘에 있는 하늘 집을 바라보며 '의로우시며 선택 받은 한 분이 그의 회막을 나타낼' 시간을 고대하는 에녹을 묘사한다(71:5). 90장 26-42절은 다가오는 종말론적 하늘 성전을 다시 언급한다.³¹⁾ 종말론적 권면들로 구성된 '에녹의 서신(91-108장)'은 하나님의 궁극적 정당성을 입증할 종말론적 심판을 다룬다.

3. 쿵란 공동체의 문헌에 나타난 하늘 성소/성전

'성전'은 유대 사상 연구에 일대 광명을 비춘 쿵란 문서들³²⁾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던 주제 중의 하나이었다. 심지어 발견된 사해사본 중 가장 긴 사본으로 오경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는 성경 주석으로 명칭 자체에 '성전'이 붙은 '성전 사본'도 있다.³³⁾ 물론, 발견된 쿵란 문서들에 사용된 '성전'이란 단어는 상이한 의미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질 미래에 있을 성전, 새로운 종말론적 성

31) 72-82장은 '천체들의 책(Boof of the Luminaries)'라고 불린다. 핵심내용은 히브리 성경의 태음력이 364일로 이루어진 태양력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83-90장은 에녹이 아들 므두셀라에게 들려주는 두 개의 꿈 이야기이다. '동물묵시록(Animal Apocalypse)'이라고도 불리는 두 번째 꿈(85-90장)에서 하늘 성전이 다시 언급된다.

32) 레이몬드 설버그, 「신구약 중간사」(*Introduction to the Intertestamental Period*),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18-135 참조.

33) Moshe Pearlman, *The Dead Sea Scrolls in the Shrine of the Book* (Tel Aviv: Sabinsky Press, 1989), 8-72 참조.

전, 하늘 성전, 그리고 성전 그 자체로서의 공동체. 이 내용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질서에 대한 적대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³⁴⁾ 본 연구의 관심은 이런 용례들 중에서 ‘하늘 성전’을 구별하여 찾는 것이며, 또한 그런 언급들이 과연 히브리 성경과 어떤 연관을 갖고 하늘 성전을 설명하는지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우선, 쿵란 문서들도 하늘 성전의 실재를 언급한다. 1QM 12:1은 하늘 성전의 존재를 가리킨다. 1QM 2:3과 7:11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늘 성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비록 본문이 매우 파편적으로 남아 있지만, 2Q24도 하늘 성전은 새로운 도성의 일부라는 사상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하늘 성전이 나타나리라는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성전이 현존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흔치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쿵란 공동체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³⁵⁾ 이러한 이유로 성전 관련 본문들을 조사한 맥니콜은 “쿵란 문서가 현존하는 하늘 성전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공동체는 하늘로부터 임할 성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적은 결코 없었다”³⁶⁾고 하였다.

쿵란 문서 중에서 하늘 성전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4QFlorilegium (4QFL)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서는 사무엘하 7장 10-14절, 시편 2편 1절 등을 포함한 몇몇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인데, 흥미롭게도 세 종류의 성전, 곧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 성전,’ ‘이스라엘 성전,’ 그리고 ‘사람 성전’에 대해 언급한다.³⁷⁾ 1라인에서 종말의 시대에 등장하여 오염된 옛 성전을 대신할 새 성전으로서의 하늘 성전을 언급한다. 핵심은 “여호와께서 너[다윗]를 위하여 집을 짓고”(삼

34) 쿵란 공동체가 예루살렘 중심의 질서와 결별한 이유가 정치적 이유보다는 제의적 이유와 정결 의식 때문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이윤경, “쿵란 문서에 나타난 정결법,” 『구약논단』 15 (2009), 144-61.

35) 다음을 참조하라. 조명기, “쿵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구약논단』 22 (2006), 115-128.

36) McNicol, *Relationship of the Image of the Highest Angel*, 112-113.

37) 이 문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 J. Brooke, *Exegesis at Qumran: 4Q Florilegium in its Jewish Context* (Sheffield: JSOT Press, 1985). William R. Lane, “A New Commentary Structure in 4Q Florilegiu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8/4 (1959), 343-346.

하 7:12)라는 약속이다. 2라인에 출애굽기 15장 17절이 종말론적 성소에 대한 증거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이 문서의 저자들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종말론적 성소의 도래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쿰란 문서 중 하늘 성전과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문서는 제4동굴에서 발견된 ‘안식일찬양사본’ 즉 4QShirShabb이다. 이 문서는 그야말로 “하늘 성전 개념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³⁸⁾이다. 이 문서에는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에 의해 전개되는 의식들이 장중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문서를 상세히 분석하여 ‘안식일 희생 찬양’(Songs of the Sabbath Sacrifice)이란 제목으로 출판한 캐롤 뉴섬(Carol Newsom)³⁹⁾은 그 책의 한 부분에 ‘하늘 성전’⁴⁰⁾이란 제목으로 이 문서가 언급하고 있는 하늘 성전을 모아서 소개하고 분석한다. 그녀는 이 쿰란 문서에 사용된 하늘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 ‘하늘’과 ‘성전’과 ‘의식’을 나타내는 다양한 히브리어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 이후 그 용어들과 사례들에 대한 총평에서 해설을 제공한다.⁴¹⁾ 또한 이 문서는 하늘 자체를 성소(heaven as a temple)로 보기도 한다.⁴²⁾ 그런데 그녀에 의하면 이 문서에는 매우 독특한 하늘 성전 개념이 묘사되어 있다. 그건 다른 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 그녀는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안식일 찬양에 나타난 하늘 성전에 관한 묘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일곱 영역, 일곱 성전, 일곱 지성소에 대한 언급이다.”⁴³⁾ 그녀는 이 일곱 성전의 개념은 병행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⁴⁴⁾

38) Himmelfarb, 윗글, 212.

39) Carol Newsom, *Songs of Sabbath Sacrifice: A Critical Edition* (HSS 27; Atlanta: Scholars Press, 1985)를 보라. J. Strugnell, “The Angelic Liturgy at Qumran, 4Q Serek Siroi ‘Olat Hasshabat”, *VT* 7 (1959), 318-45. 참조.

40) Newsom, 윗글, 39-58.

41) 윗글, 47.

42) 윗글, 48.

43) 윗글, 48.

44) 윗글, 48.

4. 유대 문헌의 하늘 성소와 히브리 성경

위에서 우리는 위경의 문헌들과 쿰란문헌에 언급된 하늘 성소에 관한 묘사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관찰의 결과 이 본문들이 묘사하는 총괄적인 하늘 성소 개념을 ‘그 존재와 기능’으로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로 ‘하늘 성소의 존재’에 있어서는 이들 문헌들은 하늘에 성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둘째로 ‘하늘 성소의 기능’에 있어서는 하늘 성소를 오염된 지상 성소를 대신하여 세위질 종말론적 시대의 사건들과 제도들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⁴⁵⁾ 이제 이런 입장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관심사인 이들 외경 묵시문학의 본문들이 과연 히브리 성경의 본문을 의지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본문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하늘 성전의 존재와 관련하여

히브리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하늘 성소에 대해 이 유대 문헌들은 히브리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사상을 가져왔을까? 다시 말해, 히브리 성경의 어느 본문을 권위의 근거로 삼아 하늘에 성전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상을 전개하였을까?

그 첫 번째 본문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이다. 그 사실은 먼저 회년서에서 확인된다. 회년서는 모세가 시내 산 위에서 보낸 40일 동안 그에게 계시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회년서는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사십일 사십야를 있으니라”(1:4)로 시작한다. 이 구절은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일 사십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고 한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반영한다. 그러니 출애굽기 24장 18절은 회년서의 ‘핵심 원전’이다. 회년서가 기록하고 있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초반까지의 내용을 압축하고, 생

45) Hamerton-Kelly, *위경*, 4.

략하고, 설명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재진술한 것이다. 회년서가 출애굽기 24장 18절에 근거하여 그것을 확대한 것이라면 거기에 기록된 성소와 관련된 내용들은 필히 출애굽기 25장에 주어진 성전건축 지시에 근거한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회년서의 저자는 종말 시대에 세워질 새 성전의 실제성을 출애굽기 25장에 근거하여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 성전의 실제성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보여주신 성전의 '모양'(출 25:9) 혹은 '양식'(출 25:40)이란 표현에 근거하여 더욱 분명히 제시된다.⁴⁶⁾ 이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תבנית(타브니트/식양)는 우상의 형상(신 4:16-18), 단의 식양(왕하 16:10), 성전의 식양(대상 28:11-19) 등에 사용되었다. 위경의 저자들은 이 표현을 근거로 하늘에 성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상을 전개하였다. 즉, 지상 성소의 구조는 하늘 성소의 실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 단적인 증거가 바룩 2서에 나타난다. 그 책 4장 5절은 “내[야훼]가 모세에게 성막과 그 기구의 식양을 보일 때에”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59장 4절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회복될 시온을 묘사하면서 “현재 성소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그 수치로 된 시온의 모양”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모두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에 근거한 표현이다. 흥미로운 점은 종말론적 시온의 성소를 묘사하면서 그것이 현재의 지상 성소의 모양을 따른 것이라고 표현한 점이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를 본 딴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본 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유대 문헌들이 하늘에 실제로 성소가 존재한다는 사상을 전개하면서 의지한 또 다른 히브리 성경 본문이 이사야 6장 1-3절이다. 그 본문은 ‘주께서 앉으신 높이 들린 보좌,’ ‘그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 ‘주를 모시고 선 여섯 날개 있는 스랍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거룩의 삼중송(trishagion)을 소개한다. 이

46)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난 תבנית(타브니트)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김성래, “출애굽기 25:9의 ‘식양’과 ‘보이는 대로’(마레)에 대한 재해석: 출애굽기 19-24장을 공간적/요약적 반복의 문학기법을 이용하여 읽음으로써,” 『구약논단』 14 (2003), 27-47.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에 언급된 히브리어 תבנית(타브니트)에 대해 영어번역본들 중에서 TEV는 plan으로 번역하였고, NJB는 design으로 번역하였다. 이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역본들이 9절과 40절에 나타난 이 단어를 pattern으로 번역하였다.

본문을 의지하여 하늘 성소를 묘사한 대표적인 경우가 레위언약서이다.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2:10; 5:1),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영광의 성전’(18:6) 등의 개념이 그러하다. 후기의 랍비문헌에서도 이 이사야 6장의 본문을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사상의 ‘가장 초기 자료’로 보기도 하였다.⁴⁷⁾

2) 하늘 성전의 기능과 관련하여

유대 문헌들은 반복하여 지상성전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며, 반대로 종말에 등장할 하늘 성전의 회복시키는 위대한 기능을 묘사한다. 이 사실은 이들 문헌들을 남긴 익명의 저자들이 제2 성전을 재건한 예루살렘 중심의 정치적-종교적 지도력에 근본적인 신학적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⁴⁸⁾ 그렇다면 이 문헌들은 히브리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의지하여 그런 주장을 전개하고 있을까?

첫 번째 본문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고 말하는 출애굽기 15장 17절이다. 희년서는 종말에 등장할 성소는 죄로 오염된 지상 성소와 같지 아니하며 온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성전이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성전을 세울 것’이기 때문임을 강조한다(1:17, 21, 49:18). 이러한 사상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표현의 반향임에 틀림이 없다. 쿰란 문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출애굽기 15장 17절이 종말론적 하늘 성소의 근거로 활용된다.

47) Victor Aptowitzer, *The Celestial Temple As Viewed in the Aggadah*, adapted by Aryeh Rubinstein (Jerusalem: International Centre for University Teaching of Jewish Civilization, 1931), 1.

48) 이런 입장은 오르로프(Andrei A. Orlev)도 견해를 같이한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Andrei A. Orlev, *Selected Studies in the Slavonic Pseudepigrapha* (Leiden: Brill, 2009), 72. 그는 제2 성전시기에 하늘 성전이 강조된 것은 여러 다양한 종교적 그룹들이 서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본문은 에스겔 1장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현현과 그에 수반된 여러 현상들이 묘사되어 있다. 유대 묵시문학이 묘사하는 승천 기사는 이 본문을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다. 특별히 에녹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 우주여행을 하는 것을 묘사하는 에녹1서 12-19장은 에스겔 1장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 사실은 에녹1서 14장 15-17절의 본문을 보면 분명해진다.

두 번째 집이 내 앞에 펼쳐지니 이전 것보다 더 위대했으며 모든 것을 불의 혀로 지어졌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은 웅장하고 위대했으며 내가 이 화려함과 크기를 형용할 수가 없었다. 이 바닥은 불과 같았고 그 위는 밝게 빛났으며 별들의 길이 있었다. 이 천정도 마찬가지로 타오르는 불꽃이었고 나는 그 안에 높은 보좌를 올려 보았다. 마치 수정과 같은 형태와 빛나는 태양빛 같은 바퀴들이 ... 그리고 위대한 영광이 그 보좌 위에 좌정하였고, 그의 의복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 어떤 눈보다도 희었다.

이 본문은 한 눈에 보기에 에스겔 1장을 연상시킨다. 불꽃, 광채, 수정, 바퀴, 등의 표현들은 에스겔 1장에 사용된 바로 그 용어들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녹1서의 본문에 에스겔 1장 이외의 또 다른 히브리 성경의 본문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위대한 영광이 높은 보좌에 좌정하였다”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이사야 6장 1절의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를 거의 문자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에녹1서의 저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늘 성소를 묘사하기 위해 히브리 성경의 본문들을 창조적으로 인용하고 종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 본문은 에스겔 40-48장이다.⁴⁹⁾ 그 난해함으로 유명한 이 본문이 묘사하는 소위 ‘새 성전’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즉, 비교적 상세한 건축학적 정보

49) 에스겔 40-48장에 묘사된 ‘새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김상래,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 16 (2004), 215-244.

가 주어져 있지만(40:5-42:20), ‘지으라’는 명령은 없고 단지 선지자가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여 알게 하라는 명령만 있다(40:4).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다(43:4; 44:4).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는 강수가 흘러나온다. 그 강 주위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가 있다(47:1-12). 이 성전의 위치는 땅의 중심이다(48:1-35).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 본문은 종종 이상적인 하늘 성전을 묘사하는 유대 묵시문학의 원전으로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예녹 1서 24장 1절부터 25장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본문은 새로운 시대에 회복될 낙원의 한 가운데 있는 일곱 개의 거룩한 산, 시들지 않는 잎을 가진 향기로운 나무, 열매 등을 묘사한다. 이것은 모두 에스겔 본문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의 모습을 반사하는 것이다. 또한 다가올 시대에 언덕들은 썩은 우물과 같을 것이며(53:7),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60:4)이라는 등도 에스겔의 새 성전 묘사와 대응한다.

하늘 성소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에스겔 40-48장을 의존한 것은 쿰란 문헌들에서도 발견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안식일 찬송시(Sabbath Shiro⁵⁰)이다. 이 사실에 대해 안식일찬송시(Sabbath Shiro^t)를 편집하고 주해한 캐롤 뉴썸은 다음과 같이 의 언급한다.

Sabbath Shiro^t은 하늘 성전의 개념과 이미지 그리고 언어적 표현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빌려왔다. 하늘의 실체에 관한 묵시록적 전승뿐 아니라 출애굽기,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에 나오는 의식에 관한 묘사들이 이 안식일 찬양 문서에 반영되었다. … 그러나 이 문서 전체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에스겔이다. 병거를 묘사하기 위해 에스겔 1장과 10장을 이용한 것은 Sabbath Shiro^t 후반부의 구조와 내용에 영향을 미친 에스겔 40-48장을 이용한 것에 비해 2차적으로 보인다. Sabbath Shiro^t은 에스겔 40-48장의 단순한 주석이 결코 아니다. … Sabbath Shiro^t

50) 다음의 논문도 참조하라. J.M. Baumgarten, “The Qumran Sabbath Shiro^t and Rabbinic Merkabah Traditions”, *RevQ* 13 (1988), 199-213.

의 주된 관심은 하늘 성소에서의 천사들과 그들의 찬양에 관한 묘사이다.⁵¹⁾

다시 말하면, 콤란 공동체 문서는 하늘 성전을 묘사하기 위해 히브리 성경에서 출애굽기, 열왕기상, 역대상 등을 인용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책은 에스겔서이며, 그 에스겔 중에서도 40-48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⁵²⁾ 이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늘 성소의 이상적 기능과 관련하여 위경의 문헌들이나 콤란 문헌들 공히 에스겔 40-48장을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21-22장에 묘사된 하늘 예루살렘과 하늘 성전도 이 에스겔 40-48장의 이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⁵³⁾ 이런 이유로 에스겔 40-48장의 새 성전에 관한 이상은 종종 후기의 하늘 성전 개념의 근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물론, 유대 문학들의 하늘 성소 사상이 언제나 히브리 성서에 의존하여서만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히브리 성경에서 그 원전을 찾기 어려운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하늘 예루살렘과 하늘 성소는 어머니로, 그리고 이것의 지상 대응물은 아들로 묘사한 에스라 4서의 풍유적 묘사는 구약의 배경이 되었다기보다 신약의 전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갈 4:26)는 바울의 진술이 그것을 선명하게 나타낸다.

51) 윗글, 51-52.

52) 이러한 사실은 후지타(Shozo Fujita)의 “콤란 공동체의 성전 신학과 에스겔: BC 2 세기 기간 동안 그들의 유대 문학과 관계”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Shozo Fujita, “The Temple Theology of the Qumran Sect and the Book of Ezekiel”,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to Vanderbilt University, 321.

53) 다음을 참조하라. Susan Niditch, “Ezekiel 40-48 in a Visionary Context”, *CBQ* 48 (1986), 208-24 (214); Sarah Ann Sharkey, “Background of the Imagery of the Heavenly Jerusalem in the New Testament”,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86), 34-38; Pilchan Lee, “New Jerusalem in Revelation 21-22 in the Light of Its Background in Jewish Tradition”,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St. Andrews University (1999), 1-29.

5. 결론

비록 히브리 성경에 하늘 성소라는 표현이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경과 쿠파란 문헌에는 이 개념이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위경과 쿠파란문헌은 히브리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여 하늘 성소 개념을 보여준다. 이는 히브리 성경이 이들 유대 문헌에서 하늘 성소 개념을 전개하기 위한 권위 있는 원천으로 작용하였음을 나타낸다.

둘째, 이들 문헌들이 하늘 성소의 '존재'와 관련하여 의존한 주요 본문은 출애굽기 25장과 이사야 6장이고, 하늘 성소의 종말론적이고 이상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의존한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7절, 에스겔 1장, 10장, 40-48장이다. 이 여러 본문들 중에서도 하늘 성소의 존재와 기능과 관련하여 각각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본문은 출애굽기 25장과 에스겔 40-48장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에스겔이 유대 묵시문학에서 하늘 성소 개념의 가장 오래된 성서적 원전”⁵⁴⁾이 되었다는 판단은 옳다.

셋째, 이들 문헌들이 하늘 성소 사상을 전개하기 위해 사용한 히브리 성경 의존 방식은 인용, 확대, 종합 등의 창조적인 방식이었다.

6. 참고문헌

강승일.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간”, 『구약논단』 15 (2009), 126-143.

김상래. “이사야 6장의 ‘이상의 현장’(visionary locale)은 어디인가?: 1절의 헤칼(מִקְדָּשׁ/성전)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5 (2007), 30-47.

_____.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 16 (2004),

54) Hamerton-Kelly, 윗글, 15.

215-244.

- _____. “출애굽기 25:9의 ‘식양과 ‘보이는 대로’(마레)에 대한 재해석: 출애굽기 19-24장을 공관적/요약적 반복의 문학기법을 이용하여 읽음으로써”, 「구약논단」14 (2003), 27-47.
- 러셀, D. S. 「신구약중간시대」(*Between the Testaments*). 임태수 역. 서울: 컨쿨디아사, 1997.
- 배정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개운동의 모델 연구”, 「구약논단」65 (2017), 112-138.
- 설버그, 레이몬드. 「신구약 중간사」(*Introduction to the Intertestamental Period*).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이윤경. “쿰란 문서에 나타난 정결법”, 「구약논단」15 (2009), 144-61.
- 조명기. “쿰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구약논단」22 (2006), 115-128.
- 콕스터, 「헬무트. 신약성서배경연구: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History, Culture, and Religion of the Hellenistic Age*). 이억부 역. 서울: 은성, 2003.
- Aptowitzer, Victor. *The Celestial Temple As Viewed in the Aggadah*. adapted by Aryeh Rubinstein. Jerusalem: International Centre for University Teaching of Jewish Civilization, 1931.
- Barker, Margaret. “Beyond the Veil of the Temple: The High Priestly Origins of the Apocalypse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998) 51/1, 1-21.
- Brooke, G. J. *Exegesis at Qumran: 4Q Florilegium in its Jewish Context*. Sheffield: JSOT Press, 1985.
- Charles, R. H. *The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of the Old Testament*. Great Britain: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Charlesworth, James H.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Apocalyptic Literature & Testaments*. NY: Doubleday, 1983.

www.kci.go.kr

- Fujita, Shojo. *The Temple Theology of the Qumran Sect and the Book of Ezekiel*,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to Vanderbilt University (1970).
- Gray, G. Buchanan. "The Heavenly Temple and The Heavenly Altar." *The Expositor*, 7th series, volume 5(1908), 385-402, 530-546.
- Hamerton-Kelly, R. G. "The Temple and the Origins of Jewish Apocalyptic." *Vetus Testamentum* 20 (1970), 1-15.
- Himmelfarb, Martha. "Apocalyptic Ascent and Heavenly Templ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tudy Papers* 26 (1987), 210-217.
- Lane, William R. "A New Commentary Structure in 4Q Florilegiu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8/4 (1959), 343-346.
- Lee, Pilchan. "New Jerusalem in Revelation 21-22 in the Light of Its Background in Jewish Tradition,"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St. Andrews University (1999), 1-29.
- Loretz, Oswald. "Gottes Thron in Tempel und Himmel nach Psalm 11: Von der altorientalischen zur biblischen Tempeltheologie." *UH* (1995), 245-70.
- McNicol, Allen James. "The Heavenly Sanctuary in Judaism: A Model for Tracing the Origin of an Apocalyp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3/2 (1987), 66-94.
- . *The Relationship of the Image of the Highest Angel to the High Priest Concept in Hebrews*,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Vandervilt University (1974).
- Newsom, Carol. *Songs of Sabbath Sacrifice: A Critical Edition*. HSS 27. Atlanta: Scholars Press, 1985.
- Orlev, Andrei A. *Selected Studies in the Slavonic Pseudepigrapha*. Leiden: Brill, 2009.

- Pearlman, Moshe. *The Dead Sea Scrolls in the Shrine of the Book*. Tel Aviv: Sabinsky Press, 1989.
- Sanglae, Kim. *The Heavenly Sanctuary/TEmpire in the Hebrew Bible*,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University of Sheffield (2002).
- Sharkey, Sarah Ann. "Background of the Imagery of the Heavenly Jerusalem in the New Testament,"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86).
- Strugnell, J. "The Angelic Liturgy at Qumran. 4Q Serek Sirot 'Olat Hasshabat'." *VTSup* 7 (1959), 318-45.
- Susan Niditch, "Ezekiel 40-48 in a Visionary Context," *CBQ* 48 (1986), 208-24
- Zimmer, Robert G. "The Temple of God."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8 (1975), 41-46.

검색어

하늘 성소/성전

위경

묵시문학

쿰란 문헌

예루살렘 성전

The Description of Heavenly Temple in the Pseudepigrapha and Qumran Literature and Its Literary Dependence on the Hebrew Bible

Sanglae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The 'heavenly sanctuary/temple' motif does not appear terminologically in the Hebrew Bible. But in the apocalyptic literature of the Pseudepigrapha and Qumran documents the motif is often explicitly described. It is evident that the extra-biblical Jewish literature uses the Hebrew Bible as the authoritative source when it develops a certain motif. In this intriguing circumstance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by using the literary-synchronic analytical approach, which passages of the Hebrew Bible these literature depends on.

Outcomes show that Exodus 25 and Isaiah 6 are used as the main biblical sources in relation to the present existence of the heavenly temple, and that Exodus 15:17, Ezekiel 1, 10, and 40-48 with regard to its eschatological and ideal function. Exodus 25 and Ezekiel 40-48 out of these texts function as the two most significant texts. It is finally revealed that

www.kci.go.kr

Exodus and Ezekiel are the primary sources of the heavenly temple idea not only in the apocalyptic Jewish literature but also in the Qumran literature. The manner of the literary dependence of these literature on the Hebrew Bible is creative, using citation, enlargement, and synthesis.

Keywords

heavenly sanctuary/temple

Pseudepigrapha

apocalyptic literature

Qumran literature

Jerusalem temple

- 투고일: 2019년 1월 14일
- 심사일: 2019년 1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3일

www.kci.go.kr